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2015년 1월 15일(목)

대변인 박성식 010-4806-3142

(우)100-702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22번지 경향신문사 13~15층

대표전화 (02)2670-9100 FAX (02)2635-1134

비정규직 양산정책 폐기! SK재벌 비정규직 현안 해결! 민주노총 긴급 결의대회

□ 개요

- 일시 : 2015. 1. 15.(목) 17시
- 장소 : SK텔레콤 앞
- 참가규모 : 2,000여 명

□ 대회 구성

- 17:00 개회 및 노동의례
- 17:10 투쟁발언1 /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
- 17:15 투쟁발언2 /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
- 17:18 연대발언 / SK브로드밴드 지역가입자
- 17:21 투쟁발언3 /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형석 본부장
- 17:24 문화공연
- 17:34 투쟁발언4 / 민주일반연맹 서울통게이트지부 또는 부산보건소지부
- 17:37 투쟁발언5 /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 17:41 총괄발언 /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 17:46 투쟁선포문 낭독

□ 취지

박근혜 정권은 2014년 12월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비정규직 양산대책을 발표한 후 거듭 강행의지를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정책을 재벌 등 거대자본의 이익을 위해 경제침체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책임을 노동자 내부에 전가하는 기만적인 반노동 정책으로 규정한다. 핵심적으로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의 '책임과 부담'을 노동자 내부로 떠넘기는 정규직 과보호론을 앞세워 노동시장 전체를 하향평준화시켜 고용불안 저임금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것이 골간이다.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이 기만적인 또 하나의 이유는 SK브로드밴드 등 작년 부터 지금까지 탄압과 투쟁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비정규직 현안문제에 대해 정부와 자본은 아무런 해결의지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비정규직 현안에 대응해 민주노총은 투쟁을 천명하고 투쟁태세를 갖춰나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민주노총은 내일 15일 결의대회를 통해 비정규직 양산정책 폐기와 비정규직사업장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실력행사에 나서는 한편,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책에 맞선 총파업을 결의하고자 한다.

현재 비정규직 현안으로는 케이블방송통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과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16개 지부 임·단협 교섭, 민주일반노조 서울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다. 특히,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지부는 전면파업 56일(1월14일 현재)을 경과하고 있지만, 원청인 SK는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다. 1월 6일 한 때는 조합원 600여명이 교섭을 요구하며 SK본사 면담투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22명의 연행자가 발생했고 1명이 구속됐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 등은 지난 12일 원·하청이 참가하는 3자 협의체 교섭을 제안하며 금주 내로 화답할 것을 사측에 요구한 바 있으며 15일 결의대회를 경고한 바, SK와 LG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다.

□ 투쟁 선포문

비정규직 양산정책 폐기하고 SK, LG 재벌의 비정규직 중간착취부터 해결하라

이 겨울 얼마나 더 거리의 노동자로 살아야 하는가! 얼마나 더 굴뚝에 올라야 하고, 얼마나 더 연행되고 구속돼야 하는가! 교섭하지 않겠다면 투쟁도 중단될 수 없다. 결코 탄압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그럴수록 노동자의 외침은 더욱 커갈 뿐임을 명심하라!

박근혜 정권은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비정규직 양산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SK, LG 등 당장의 비정규직 문제는 뒷전이고, 비정규직 기간제한 연장과 간접고용 파견 전면 확대를 통해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려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한 정책에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란 이름을 붙이지 말라. 더 이상 노동자 죽이기를 통한 경제 살리기는 가능하지 않다!

해고요건 완화로 고용불안을 가중시키고 성과압박으로 저임금체계를 확산시키는 정책을 비정규직 대책이라 주장하는 박근혜 정부는 기만정권이며 사기정권이다. 정권과 자본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책임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의 부담을 노동자 내부로 떠넘기려 하지만, 우리는 단결할 것이다. 언제나 투쟁은 우리 노동자의 희망이며, 우리 사회의 밑거름이 돼왔음을 확신한다.

그 투쟁의 첫 번째 목표는 SK, LG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이다. 슈퍼갑 대주주의 불노소득을 위해 원청의 갑질이 횡행하고, 하청에 재하청, 도급에 특수고용 등 뒤엉키고 은폐된 먹이사슬 아래 노동자는 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 1주일이면 60~70시간을 일했다. 점심시간도 없이 뛰었지만 한 달에 고작 2~3일밖에 쉬지 못했고, 회사는 업무비용까지 우리에게 떠넘겼다. 회사 멋대로 평가해 급여를 차감했고, 이 일자리조차 잃을까봐 매년 고용불안에 떨어야 했다.

우리는 사람답게 살고 싶다. 100여 일이 넘는 얼음바닥 농성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우리의 진짜 사장은 과연 누구인가! 더 이상 주인도 모르는 노예로 살지 않을 것이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다단계 하도급구조를 개선하라! 우리는 사람답게 일하고 싶다. 해고자 원직복직, 고용승계 수용하라!

박근혜 정부는 비정규직 양산정책 폐기하고 노동시장 구조개혁 중단하라! 멈추지 않는다면 투쟁선포는 선포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파업은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다. SK, LG 비정규직 투쟁은 물론 삼성전자서비스, 티브로드·씨앤엠,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투쟁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15년 총파업, 우리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투쟁할 것임을 선포한다.

- 기만적 비정규 종합대책 폐기하라!
- 진짜사장 SK-LG가 비정규직 문제 즉각 해결하라!
- 비정규직 해결 없이 최태원 가석방 어림없다!
- 총단결 총력투쟁 SK-LG 투쟁 승리하자!

2015. 1. 15.

**기만적인 비정규직 종합대책 폐기 SK-LG그룹 비정규직 문제 해결
민주노총 긴급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 비정규직 투쟁 현황과 요구

소속		요 구	현 황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	8.18 합의 폐기 정규직 전환(전주.아산 논의 중) 손배 철회(215억 원)	2015년 투쟁 준비 중
	기아차비정규직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특근수당 차별해소 등	집단소송 준비 중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임.단협 체결 토요근무 수당지급 및 성과급 동일적용 출입증 발급 등	산발적 부분파업 중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진주센터 폐업 철회 및 고용승계 마산센터 정상화 및 고용승계 김해센터 폐업 중단 및 고용승계 고의적 일감 줄이기 탄압 중단	향후 전국 센터별 확산우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공공부문 용역노동자보호지침(시중노임단가 보장) 준수 등	16개분회 집단교섭(3차) 노:임단협요구안 전달. 사:개약안 철회->제출 예정
	인천공항지역지부	업체변경 시 고용 및 단협 승계 안전업무 외주화 금지	조직정비 및 투쟁준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교육공무직법 제정	2015년 투쟁 준비 중
	울산대병원(민들레분회)	업무방해 소송취하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부결
민주일맹연맹	서울톨게이트주식회사 지부	시중노임단가 적용 및 내부 평가제 폐지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직고용 및 공사전환	농성 중(양주 톨게이트)
	부산시보건소 비정규직지부	무기계약직 전환	12월 31일 300명 해고
서울본부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	노동조합 활동 보장 노동시간 단축 및 임금체계 개편 다단계하도급 개선 및 업체 변경 시 고용안정 및 근속보장	파업 중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	정규직 전환 통상급 임금체계 개편 노조탄압 중단 및 노동조건 보장 등	파업 중
울산본부	울산지역연대노조 울산과학대지부	시중노임단가 7,910원 요구(생활임금 보장)	파업 중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교육공무직법 제정	2015년 투쟁 준비 중

2015. 1. 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